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19 "우리도 뵈다"



광주달리기 동호회 회원들이 지난해 자체 단체 대항전 후 기념촬영을 하며 화합을 다지고 있다. (광주달리기동호회 제공)

운동 좋아하면 누구든 'OK' 함께 달리며 즐거움 나누죠

■ 광주 달리기 동호회

"함께 달리면 더 즐겁습니다." 광주달리기 동호회 회원들의 캐치프레이즈다. 지난 2000년 11월 회원들의 뜻을 모아 만든 광주달리기 동호회는 현재 100여명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온라인 회원까지 1천700여명을 보유한 광주의 대표적 달리기 클럽이다.

'서브-3' 회원 9명...대표적 달리기 클럽

최봉규 회장(천일산업 대표)은 "3·1절 전국마라톤대회는 새 봄을 여는 첫 대회인 동시에 여러 회원들이 겨우내 갖고 있던 훈련 성과를 시험하는 시험대와 같은 대회다"며 "3·1정신을 되새기고, 회원들의 상호 친목과 실력을 기르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을 통해 건강을 다지고 실력향상을 꾀하고 있다. 수요일에는 광주 서구 풍암구 월드컵보조경기장에서 스피드 훈련을 하고, 토요일에는 영주체육관과 마재우체국 주변 4km, 7km코스를 달리고 있다. 일요일에는 시외 장거리 훈련에 나선다. 특히 요즘에는 오르막 훈련을 위해 무등산 산장오르막길을 달리며 과학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동계 훈련 성과 점검하는 좋은 기회"

비시즌인 겨울과 한 여름에는 자체로 단체대항전을 실시해 회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감을 불어넣는다. 오승희(여·39)회원은 입문 2년만에 '서브-3'(춘천마라톤대회 2시간 58분)을 달성한 마라토너로 호남 여성 최초 서브-3의 영예를 차지해 광주달리기 동호회의 자랑스러운 얼굴이다. 신은석(44) 부회장은 입문 2년만에 85kg이던 체중을 67kg으로 감량에 성공해 건강을 되찾았으며 폴코스 9차례 완주와 역시 서브-3를 달성해 '의지의 한국인'으로 회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외에 김기흥·정신연 부부는 각종 마라톤 대회 페이스메이커로 활동하는 마라톤 매니아로 전국 마라톤클럽에 이름이 나 있으며 정인주·정신, 김정규·박윤경, 최석진·임경숙 부부도 대표적인 부부달리기로 훌륭한 부부를 과시하고 있다. 박왕수(48)씨는 최근 3개 대회에 출전해 연속 서브-3를 달성해 물오른 기량을 과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프로야구 센테니얼 "현대선수 100% 승계"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로부터 고용 100% 승계 약속을 받은 현대 유니콘스 선수들이 제주도 전지 훈련 참가를 결정하면서 난항을 겪던 프로야구 제8구단 창단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8구단 창단작업 탄력

선수들 전지훈련 참가

선수들과 전체 면담을 하고 "올해 선수들 100% 승계하겠다"고 약속했다. 1시간 25분간 문답형식으로 선수들의 궁금증을 풀어준 뒤 선수들과 따로 회견한 박 단장은 "고역 연봉 선수들이 자신의 연봉을 깎아서라도 선수들과 함께 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센테니얼도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선수들의 집단 반발에 밀려 100% 승계 결정을 내린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선수들의 전지 참가가 결정되면서 센테니얼은 13일부터 곧바로 제주도 서귀포 강창학 구장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착수했다.

창단 과정에서 최대 난제를 해결한 박 단장은 곧바로 향후 팀 운용 계획을 밝혔다. 그는 "곧 유니폼 제작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제주에서 일단 손발을 맞춘 뒤 3월 초에는 남해 등 남쪽 지방으로 올라와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다. 외국인 선수는 메이저리그 스프링캠프에서 박리교 입성이 좌절된 선수를 영입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선수단이 12일 오후 시체육회 회의실에서 오는 19~22일까지 강원도 하이원 스키장에서 열리는 제89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광주시 동계체전 결단식

광주광역시 선수단이 12일 오후 시체육회 회의실에서 오는 19~22일까지 강원도 하이원 스키장에서 열리는 제89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광주서석초 정보영

알파인 대회전 '은'

영·호남천선스키 초등부

정보영(여·광주서석초 5)이 제17회 영·호남천선스키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정보영은 12일 무주리조트스키장에서 열린 여자초등 알파인 대회전에서 1차 29초68을 기록한 뒤 2차에서 29초13으로 골인, 합계 58초81을 기록했으나 윤산 김지혜(울산 약산초)에게 밀려 아쉽게 은메달에 머물렀다.

남고부에서는 박찬주(광주고 1)가 합계 53초46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테니스 스타 이형택 ATP 투어 6주 연속 출전

남자 테니스 국가대표전 테니스컵에서 환희와 감동을 동시에 안겨줬던 이형택(세계랭킹 46위·삼성증권)이 다시 땀을 흘린다. 4월 초까지 주로 미국에서 열리는 남자 프로테니스(ATP) 투어 경기에 6주 연속 출전, 랭킹 포인트 쌓기에 주력한다. 우선 이번 주에는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리는 ATP 투어 오픈13에 출전, 13일 새벽 강호 후안 카를로스 페레로(15위·스페인)와 1회전을 치른다.

아주 새너제이에서 총상금 43만6천달러를 놓고 치러질 SAP오픈에 참가한다. 이어 리전스 모건키건 챔피언십(캘리포니아, 테니스 채널 오픈(라스베이거스), 퍼시픽라이프 오픈(인디언웰스), 소니 에릭슨 오픈(마이애미) 등에서 잇달아 나서 톱랭커들과 잇달아 기량을 겨룰 전망이다. 64강이 겨루는 베이징올림픽 테니스 본선 자격 진출에 목표를 둔 이형택은 70위권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베이징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

한국 봅슬레이팀 16일 세계선수권 도전장

한국군 '볼러링'으로 국민적 감동을 불러 일으킨 봅슬레이 대표팀이 2008 FIBT(국제봅슬레이연맹)선수권대회(16~24일·독일 알텐베르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동안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종목에 배정된 아시아 티켓은 1장으로 일본의 몫이

었다. 강광매 대표팀 감독은 12일 "최종 목표를 동계올림픽 출전권 획득이라고 볼 때 일본과 격차를 줄이는 게 과제"라며 "이번에 일본과 차이를 줄여야 내년 올림픽 출전 자격대회에 자신감을 갖고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공신공공... 13일(수) 07/08 V리그 여자부(KT&G·현대건설) (16:30·KBS N SPORTS)남자부(삼성화재·한국전력) (19:00·KBS N SPORTS) 07/08 여자프로농구(삼성생명·우리은행) (16:50·SBS스포츠) 07/08 프로농구(KT&G·오리온스) (18:50·SBS스포츠)(KTF·모비스) (18:50·XPORTS) 14일(목) 07/08 NBA(샌안토니오·클리블랜드) (09:00·SBS스포츠)

Real estate advertisements including '대인동상일부동산', '금보부동산건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대지공인중개사',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and '한일지도판매(주)'. Each ad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or rent with details on location, size, and price.